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위해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대금 10% 인센티브 10% 최고 1만원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1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뜨거운 날씨 만큼이나 4월5일 단기출간에 나서는 불자들의 수행발심도 뜨거워지는 때가 여름이다. 이 맘때쯤이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수행을 통해 심을 더욱 싹피우게 하는 각종 여름수련대회가 우리를 향해 손짓한다. 수련대회 참가도 중요하지만 앞서 수행의 자세부터 챙기도록 하자.

수행은 씨를 키우는 것과 같다. (대집비유경)

민약 보살의 위대한 뜻을 일으켜 최상의 방아의 실천을 수행한다면, 상문·연각의 경지를 뛰어넘어 속히 부처님의 본성을 깨닫게 되리라. (불모반이경)

수행은 씨를 키우는 것과 같다. (대집비유경)

민약 보살이 있어서 굳건히 여러 수행을 닦아 게으름이 없을 때는, 마땅히 최고의 무애묘지를 얻게 될 것이다. (화엄경)

중생의 진여법 또한 그 핵심은 공적·정정하다 해도, 끝없는 번뇌의 더러움에 뒤덮여 있는 타이므로, 삼사 사람이 진여를 영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죽할 수 없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 갖가지로 닦지 않는다면 역시 정해지지 않는다. (기신론)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을 귀히 여기고, 수행하지 않을 것을 귀히 안 여긴다. 그러므로 오직 불행하게 수행하면 비록 이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깨달음에 먼저 들어간다. (대지도경)

온갖 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온갖 악을 끊고 온갖 선을 닦음으로써, 십지를 뛰어넘어 최상의 경지에 이른다. (석마하연론)

관련기사 2·11면

교계 소비자보호 나섰다

종단협 소비자찾 가동결의... 총지종 재정확보등 주관

7월10일 현판식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아 생산자중심에서 소비자 권익보호가 요구되고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처음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향상을 위한 소비자단체를 결성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지난 17일 정가이사회에서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감·총지종 법장원장)를 가동키로 결의하고 사업방향과 재정확보 등을 총지종에 일임했다.

이에따라 총지종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위해 오는 7월10일 총지종 청사에 사무실을 마련, 현판식을 갖고 불교소비자보호단체 출범을 공식선언한다.

이날 종단협 회장 월주스님은 "그동안 불교계가 소홀히했던 소비자보호에 불자들이 앞장서야한다"며 법종단차원으로 펼쳐는 소비자보호운동에 불교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총지종은 소비자보호운동의 활동방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 보호시

책 건의 △상품에 대한 시험, 검사 △응역의 거래·방법 조사 △소비자문제 조사 등으로 정하고 세부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총지종은 1차사업으로 소비자교육과 계몽운동을 실시하고 금년내에 소비자 피해창구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가입하고 지역청년회와 사찰을 중심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효감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위원회의 활동은 곧 불법실천

이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보호원과 10여개의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기독교를 비롯한 타종교계가 30여년전부터 소비자보호에 앞장서왔다. (이준엽 기자)

대한불교경승단(총재 월주)은 경승활동의 활성화와 경승포교역량의 재충전을 위해 오는 27일, 28일 양일간 화성 신홍사에서 전국경승단 연수회 27·28일 화성 신홍사 승단 연수회를 개최한다.

전국경찰서, 위촉 경승과 신규경승지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경승포교지침과 경승포교사태 발표,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한 강연이 펼쳐진다.

"세계일화 만민동체 이루자"

20일 조계종 해외포교 30년 기념법회

종교·정계 인사등 1천여명 축하동참

조계종 해외포교 30년을 기념하는 대법회가 지난 20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조계종 원로 석주·정호스님, 월주 총무원장, 설정 중앙총회회장, 원사 교육원장, 성담 포교원장등 종단과 각 사암주지, 강원총목사 김명운신부등 타종교지도자, 김영수문체부장관, 김명운·권익현의원등 불자국회의원, 주한 외국인대사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날 행사에서 월주 총무원장은 "한국의 선불교를 세계각지에 흥포해 온 승산스님의 큰 인력을 받들어 한국불교를 더욱 널리 흥포할 수 있는 해외포교사 양성, 기금조성 등에 종단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승산스님(화계사 조실)은 30년 해외포교를 회고하며 "세계일화 만민동체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날 승산스님의

해외포교 30년을 기린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의 공로패 수여가 있었으며 묘각 양일 광운 도문삼우 태연스님등 해외포교에 공이 큰 21명의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과 포교원장의 감사패 수여식이 각각 있었다.



조계종 해외포교 30년을 기념하는 대법회가 20일 힐튼호텔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승산스님은 해외포교 30년을 기린 공로패를 받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총무원, 전신회에 대화 제의

조계종 중앙신도회 합류원칙 재표명 할듯

조계종 전국신도조직이 사실상 중앙신도회준비위원회와 전국신도회로 양분된 가운데 통합가능성이 조실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8일 제121회 임시중앙총회 인사에서 신도회 조직개편과 관련 "전국신도회가 도덕적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각 시도지부와는 대화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전국신도회 해체후 중앙신도회 합류'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전국신도회에 대화를 제안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동쪽나라' 복간대책등 논의

조계종 121회 총회

조계종 제121회 임시중앙총회(의장 설정)가 지난 18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20일 현재·차주상보)

이대해 전국신도회는 가까운 시일내에 월주 총무원장을 예방, 전신회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전신회 손안식 사무총장은 "아직 월주스님의 진의를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대화개와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손 사무총장은 또 "조계종 신도회가 분열되는 것은 막아야 하며,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전신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종법제·개정등 22개의 안건이 상정된 총회는 개회 첫날 총무원이 상정한 호법부장 설승산스님의 임명동의안을 비밀부표에 부처 부결시키고 총무원 고를 받았다.

이어 의원들은 국립박물관에 위탁전시되고 있는 성보문화재 관리 대책과 자금난으로 휴간 위기에 처한 교계 유일의 어린이잡지 <동쪽나라>의 복간을 촉구했다.

분과위 활동보고에서 호법부과는 총무원의 승탁, 이중호적 등을 조사해 다음총회에 보고토록 결의했다. 또한 종정감사 특위는 감사 지적 사항을 집행부가 조사해 처리토록하고 불교방송총위와 함께 특위를 예체했다.

대생용 미륵반가상 전국 중·고교에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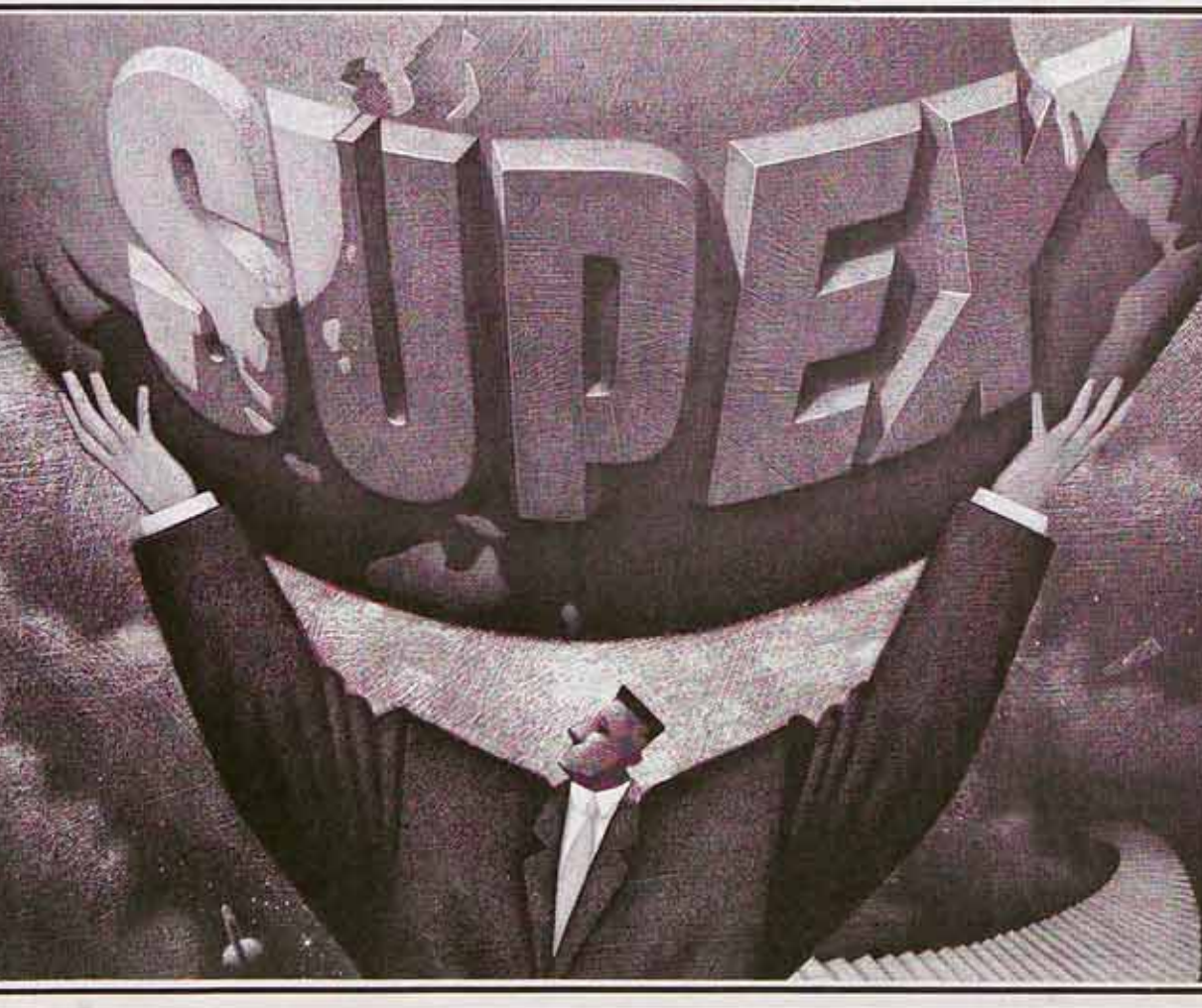
동참해주신 분 △일여 해인사스님: 함천 아로고(1구좌) △종총 천주 사주지: 문경 동로공(1구좌) △이승지: 경남여고(1구좌) △이현숙(안동유치원장): (3구좌) △이훈용: 부산 안락중(1구좌) △김양정: (2구좌) △송양복: 부산 동주중(1구좌) (1996년 6월20일 현재 총312구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지역 학교·출신학교·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 온라인계좌=국민은행 023-25-0007-617
 *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은행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바랍니다.

특별기획-경주삼산 재조명 3면
6·25 안티투 해인사 지진 범홍스님 5면
소백산마을 첫 수계현장 11면
봉영사 약수터 독서방 새명소 15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가 보호막 없는 단일 시장으로 바뀌고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펙스를 추구해왔습니다.

수펙스(SUPER EXCELLENT 수준)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